나의 필요에서 시작한 앱

원하는 정보를 말하면, 앱이 된다

ChatGPT와 대화하며 구현하고 개선한 개인 자산배분 대시보드

자산 나침반

AI 분석용 데이터 복사

내 자산 한눈에

지금의 자산, 내가 정한 방향.

총 자산 평가액 KRW

금액 비공개

평가액 · 전일 대비 · 시세 기준 시각

현금·예적금	비공개
투자자산	비공개
외화 거래 자산	비공개

대분류 자산배분



현금·예적금	현재 비공개	목표 20%
투자자산	현재 비공개	목표 80%

투자자산 역할 분석

코어 투자

금액·현재 비중 비공개

내부 기본 목표 50%

개별주

금액·현재 비중 비공개

내부 기본 목표 20%

방어·채권

금액·현재 비중 비공개

내부 기본 목표 20%

화면은 구현된 웹사이트의 구성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금액·보유 수량·계좌명·현재 비중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표시된 목표는 기본 설정 예시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설명해, 직접 사용하는 도구로 구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개선

입력은 쉽게, 분석은 나의 기준으로

자산 입력과 분석 화면의 핵심 구성을 공개용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산 추가 / 수정

종목 찾기

종목명으로 검색하고 선택

자산명 / 계좌

개인 보유 내역 비공개

수량

비공개

현재가

비공개

대분류

투자자산

역할

코어 투자

자산군

주식

투자 지역

미국

거래통화

USD

환노출

환노출

테마 태그 · 기초 종목 · 평균단가

자산군 분석

ETF라는 형식보다 실제 기초자산의 성격을 구분

지역·통화 분석

실제 투자 지역, 거래통화와 환노출 상태를 각각 표시

집중 위험

TOP 5 자산, 국가·테마 집중과 확인된 중복 노출

목표·월별 기록

목표 범위와 차액 비교, 저장 당시 가격·환율로 기록

분류 개선 사례

SGOV	ETF / 채권 / 방어·채권
ECH	ETF / 주식 / 신흥국(칠레)
GLD	ETF / 금 / 대체자산

AI 활용 과정

필요를 설명하고, 사용하며 고쳤습니다

01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

현금과 예적금, 국내·미국·일본 주식, ETF, 달러와 엔화를 관리하면서 전체 자산 구성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총금액뿐 아니라 “현금이 목표보다 많은가?”, “코어 투자 비중이 부족한가?”, “특정 국가나 통화에 집중되어 있는가?”처럼 제가 궁금한 질문에 답하는 화면이 필요했습니다.

총자산을 현금과 투자자산으로 나누고, 투자자산 안에서도 역할별 목표를 정해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월별 변화도 기록하면서 모바일과 PC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요구를 AI에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02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ChatGPT의 코딩·웹사이트 제작 기능을 활용해 ‘자산 나침반’을 구현했습니다. 저는 보고 싶은 정보와 사용 방식을 설명하고, AI는 이를 화면 구성, 데이터 구조, 계산과 저장 기능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자산 구성과 목표 비중을 비교하고 싶어. 종목은 이름으로 검색하고, 수정한 내용은 다음 접속에도 남게 해 줘.”

처음에는 자산 입력과 목표 비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직접 사용한 뒤 월별 기록, 일본 주식과 엔화, 분류 체계 개선을 차례로 요청했습니다. 특히 “SGOV는 ETF이지만 실제 자산군은 채권”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해 분류 오류와 모호함을 수정했습니다.

요구 설명 → AI 구현 → 직접 사용 → 구체적인 수정 요청

활용 결과와 차별점

내가 정한 질문에 답하는 대시보드

03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선택한 자산의 잔액과 수량을 입력하면 자산 구성, 국가·통화별 비중, 목표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웹 대시보드를 갖추었습니다. 지원되는 종목은 조회한 시세를 반영하고, 외화자산은 적용 환율로 원화 환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별 기록에는 저장 당시의 가격과 환율을 남겨 현재 시세가 변해도 과거 기록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자산 현황을 일정한 형식으로 복사해 AI에 추가 질문하는 기능도 마련했습니다. 필요한 도구를 구상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04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보고 싶은 질문을 먼저 정의했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에 더해 “내 돈이 어떤 역할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정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분리했습니다.

ETF라는 상품 형태와 실제 자산군을 구분하고, 투자 역할·지역·통화·환노출 상태를 별도로 저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계산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총자산 기준과 투자자산 내부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목표 차액은 단순 비교값으로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ETF 구성이나 미래 수익률은 추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며 확장했습니다.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처음부터 입력하지 않고, 기존 자산과 월별 기록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항목을 확장했습니다.

재현 방법과 핵심 메시지

원하는 것을 말하며, 나만의 앱을 구축하다

05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네. 자신의 상황에서 보고 싶은 정보와 관리 기준을 정리하면 같은 접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기능을 요구하기보다 작은 기능을 구현하고, 직접 사용하면서 확장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1 **질문 정하기**
“월별로 얼마나 변했나?”, “목표 비중에 맞나?”처럼 확인하고 싶은 질문부터 적습니다.

2 **최소 정보 정하기**
자산명, 잔액 또는 수량, 거래통화 등 필요한 입력 항목을 정합니다.

3 **말로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원하는 화면, 계산 기준, 저장 방식과 사용할 기기를 AI에 설명합니다.

4 **확인하고 수정하기**
가상 데이터로 계산과 저장을 확인하고, 불편한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전달합니다.

금융기관 계정을 연결하지 않아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는 접근 권한과 저장 방식을 확인하고, 공개 자료에는 개인 금융정보를 제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말하고,
AI와 함께 구현하고,
직접 확인하며 나만의 앱으로 발전시킨다.